

# “준중형 ‘인생트럭’으로 기지가개… 5년내 점유율 30% 회복”

## 타타대우상용차 간담회

서비스 네트워크 가동 등 고객 중심으로 사업 재편

경쟁사보다 성능·품질향상 목표 파워트레인 등 개발 마무리 단계

타타대우상용차가 다시 한번 기지가개를 켜고 있다. 고객 만족을 강화함과 동시에, 준중형 트럭으로 라인업을 확대하며 새로운 성장동력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타타대우상용차 김방신 사장은 4일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재도약을 다짐했다.

타타대우상용차는 대우그룹에서 첫발을 내딛은 회사로, 2004년 인도 타타자동차에 인수돼 지금까지 사업을 이어왔다. 전북 군산에 연간 2만3200여대 생산 능력을 갖췄으며, 1323명을 고용하고 전국에 70여개 서비스 네트워크도 보유 중이다.



김방신 타타대우상용차 사장.

/타타대우상용차

타타대우는 지난해 ‘인생트럭, 고객의 소리로 움직입니다’라는 새로운 슬로건을 내걸고 경영 혁신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상반기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여러 불만을 확인한 후, 근본적으로 체질을 개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방신 사장은 “국내 상용차 시장이

호황기였던 2017년보다 40% 줄어드는 동안, 타타대우 점유율도 30%에서 22%로 크게 축소됐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김 사장이 분석한 원인은 수입 상용차의 공격적인 마케팅이다. 유럽의 일류 브랜드들이 국내 시장에 빠르게 진

출하는 상황에서, 타타대우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고객을 놓쳤다고 실패를 자인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김 사장은 지난해 사업을 고객 중심으로 재편하고 서비스 네트워크를 가동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이에 따라 1월 판매실적도 성장하는 등 성과를 얻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에도 수도권과 영남, 호남 등에 서비스네트워크를 추가로 1개씩 오픈하고 상반기에는 신차 구매고객에 무상정비를 제공하는 ‘로얄 클린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고객 만족에 박차를 가한다. 2022년까지 ‘품질결함 제로’를 목표로 하는 ‘IQ2200’ 프로젝트로 품질 강화에 전사적 역량을 쏟아붓는다는 방침도 세웠다.

특히 차량 라인업을 중형(4.5~8.5톤)과 대형(8~25.5톤)에서 준중형(2.5~3.5톤)트럭으로 확대한다. 향후 5년 내에 시장 점유율 30%를 목표로 잡았다.

사업 모토는 ‘경쟁사보다 성능과 품질을 10% 좋게’다. 이미 적재공간과 파

워트레인 등 개발도 마무리 단계다. 가격 경쟁력도 충분히 확보할 예정이라고 김 사장은 덧붙였다.

김 사장은 “중형 트럭 시장은 연간 1만8000대 수준이고, 준중형 트럭 시장도 연간 1만대 규모에 달한다”며 “상용차 트럭 사업하는 회사가 이런 큰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자신했다.

차세대 친환경 트럭으로는 궁극적으로 수소트럭을 예상했다. 전기트럭은 부피가 크고 무거운 배터리 때문에 성장하기 쉽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간 단계로 LNG 트럭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할인 경쟁이 치열한 업계 분위기에 아쉬움도 전했다. 차량을 절반 가깝게 할인을 해서 판매하고, 대신 A/S나 금융 상품으로 손해를 메꾸는 방식이다.

김 사장은 글로벌 브랜드들이 앞다퉀 마케팅을 강화할만큼 국내 시장 가치가 높기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도 이익을 내기 어려울 것이라며 우려를 내비쳤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 대한항공, 인천-부다페스트 신규 취항

동유럽 경쟁력 확보 박차

대한항공이 유럽 내 ‘부다페스트’ 노선 취항으로 경쟁력 확보에 나선다.

대한항공은 오는 21일 부다페스트에 화물 노선을 개설하고 5월 23일부터는 인천-부다페스트 여객 노선에 신규 취항한다고 4일 밝혔다. 대한항공이 신규 취항하는 인천-부다페스트 여객 노선은 오후 12시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오후 4시 25분(현지시간) 부다페스트 국제공항에 도착한다. 돌아오는 편은 오후 6시 30분 부다페스트를 출발해 다음날 오후 12시 30분 인천에 도착한다.

해당 노선에는 218석 규모의 A330-200 항공기가 투입될



/김수지 기자 sjkim2935@

예정이다.

화물 노선은 헝가리행 항공 수요의 성장세에 발맞춰, 주 2회 보잉 777 화물기를 투입기로 했다. 보잉 777 화물기는 인천에서 오전 7시 20분에 출발하며 부다페스트와 프랑크푸르트를 거쳐 인천으로 돌아온다. 최근 중국발 통신기기·한국발 전자상거래 중심으로 헝가리행 항공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이번 신시장 개발을 통한 수익성 제고가 예상된다.

한편 대한항공은 이번 신규 취항으로 해외 취항 국가 및 도시가 44개국 115개 도시로 늘어나게 됐다.

## 넥슨 ‘카운터사이드’ 출격… 중국산에 반격

이면세계 그린 서브컬처 신작 차트 상위 ‘명일방주’와 대결

한 때 일명 ‘덕후’(마니아) 등 소수의 사람들만 즐긴다고 여겨졌던 서브컬처 게임이 뜨고 있다. 서브컬처 게임은 주류 게임과는 달리 신선한 콘텐츠의 면모를 보여주고, 캐릭터와 스토리의 재미를 검증받아 어느정도 안정성이 보장된다. 더구나 2차 창작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넥슨은 4월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 신작 모바일게임 ‘카운터사이드’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카운터사이드는 현실세계 ‘노말사이드’와 반대편 세계 ‘카운터사이드’의 전투를 그린 어반 판타지 역할수행게임(RPG)이다. 최근 출시된 중국 요스타의 서브컬처 게임 ‘명일방주’가 차트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어 명일방주와의 대결이 불가피해 보인다.

넥슨은 지난달 열린 ‘카운터사이드’ 미디어 쇼케이스에서 하나의 도시에 두 개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독특한 세계관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모바일 서브컬처 게임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카운터사이드’ 오리엔테이션 데이 웹툰. /넥슨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30만 자 이상의 텍스트와 50장이 넘는 컷선 일러스트로 구성된 ‘메인 스트림’, ‘외전’ 등 스토리 콘텐츠, 끝없는 이면세계를 탐사해 전투와 이벤트를 경험하는 ‘DIVE’ 등 현실세계와 이면세계를 넘나들며 미션을 수행하는 다양한 콘텐츠도 마련했다.

서브컬처는 주류 문화가 아닌 부분 문화나 하위 문화를 뜻하며, 게임에는 주로 마니아를 끌어들이 수 있는 스토리나 캐릭터가 있는 게임을 총칭한다. 최근에는 이러한 서브컬처 게임이 양대 앱

마켓 상위권에 올라가는 등 인기작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최근 출시한 요스타의 명일방주는 이날 기준, 구글스토어 매출 7위, 앱스토어 매출 25위를 차지했고, 카카오킴즈의 ‘프린세스 커넥트! 리: 다이브’, 미호요의 ‘붕괴3rd’도 꾸준히 매출 중상위권에 오르고 있다.

서브컬처로 여겨졌던 게임 콘텐츠가 문화 축제로 번져 주류 문화를 압도하기도 한다. 특히 게임산업은 캐릭터를 산업의 새 원동력으로 보고 있다. 일본의 코믹마켓은 매년 약 100만명이 참가하는 거대 시장이다. 넥슨은 웹툰 ‘테러맨’ 작가와 협업해 ‘카운터사이드: 오리엔테이션 데이’ 웹툰을 공개하며, 2차 창작물 제작에도 나서고 있다. 웹툰 카운터사이드: 오리엔테이션 데이는 현실세계를 침범한 이면세계의 침식체를 물리치는 ‘펜릴소대’의 모습을 그렸다.

넥슨은 오는 10일까지 현실세계와 이면세계를 넘나드는 게임 콘셉트에 맞춰 ‘증강현실 이벤트’도 연다. 이용자는 ‘넥슨플레이’ 애플리케이션 내 지도에 등장하는 ‘카운터’와 ‘침식체’를 찾아 이를 제보하면 최대 ‘1만 넥슨플레이 포인트’를 얻을 수 있다. /김나인 기자 silnk@

## ‘트레일 블레이저’ 1호차 주인공은 정찬성 (UFC 선수)

쉐보레 전달식 열고 고객인도 시작

쉐보레 트레일 블레이저가 ‘코리안 쯔비’를 첫 고객으로 선택했다.

쉐보레는 4일 트레일 블레이저 1호차 전달식을 열고 고객 인도를 시작했다. 전국 쉐보레 대리점에도 트레일 블레이저를 전시했다.

첫번째 고객으로는 UFC 정찬성 선수가 선정됐다.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 싸우는 경기력을 보여주며 ‘코리안 쯔비’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정 선수는, 트레일 블레이저 중에서도 가장 스포티한 RS 모델을 선택했다.

쉐보레는 정 선수를 2월부터 6개월간 트레일 블레이저 홍보 대사로도 임명했다. 작은 체구로도 한국뿐 아니라 전세계에서도 높은 인기를 구가하는 점에서



정찬성 선수가 트레일 블레이저와 포즈를 취하고 있다. /한국지엠

트레일 블레이저와 공통점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 선수는 “기존 차급을 뛰어넘는 트레일블레이저는 기술로 체급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매력의 격투기와 비슷한 면이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재용 기자

## 볼보 플래그십 SUV ‘XC90’ 시승 이벤트

볼보자동차코리아가 2월 23일까지 전국 24개 전시장을 통해 플래그십 스포츠유틸리티차(SUV) XC90 시승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이벤트 참가 신청은 볼보자동차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되며, 배정된 담당 영업사원의 개별 안

내에 따라 전국 12개 지역 중 인근에 자리한 전시장을 방문해 시승에 참가하는 방식이다. 시승을 마친 고객 전



원에게 스타벅스 기프트콘이 제공되며, 추첨을 통해 파라다이스시티 호텔 숙박권(1등 1명), 하만카돈 블루투스 헤드셋(2등, 3명) 등이 주어지는 경품 이벤트도 진행된다.

한편 볼보자동차의 핵심 차종인 XC90은 브랜드 헤리티지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디자인과 인간중심 철학을 반영한 감성품질, 안전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한 첨단 안전기술을 집대성한 플래그십 SUV다. /양성운 기자 ysw@